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10월19일 주일 설교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

로마서 8:1,2 / 새찬송가 70장 (통일 79)

1. 그리스도 예수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은 죄로 인한 절망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절규이기 때문입니다(롬7:21-24).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세상의 죄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이중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나 죽음의 문제, 죄와 정죄, 해방과 자유의 문제는 모두 법에 속한 문제입니다. 법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은 법이 다스립니다. 즉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면 ‘죄의 법’으로 다스림 받기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의 법’으로 좋게 살든 그렇지 않든 그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 하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눅23:42,43). 이는 예수님의 나라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통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도 세상 나라와 당신의 나라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요18:35,36).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새찬송가 491장). 즉 주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목표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안위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썩어질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아야 합니다(고전9:24),(빌3:13,14).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추구하는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소서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나라는 서로 구분되나 그렇다고 이 세상 나라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천국만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마6:10).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롬10:13-15).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며 위대한 직분입니까!

이 일에 힘쓰는 것이 곧 이 세상 나라의 죄인들을 불러내어 구원 받게 하는 일입니다(벧전2:9). 즉 우리가 어두운데서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부르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나라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정하고 귀신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며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와 사망의 법이 가져다준 모든 저주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입니다!

< 적용 & 실천 >

나는 아직 끊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까? 우리의 목표를 천국에서 받는 상에 두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